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인플레 둔화 불구 미 온라인 거래 식료품 가 8.2%나 상승
- WSJ:연준 목표 상층: 금융 안정화에 인플레 안정도 목표
- Bloomberg:연준, 임금 인상 우려 감소... 금리 중단 가능성 커
- WSJ Real Time Economics:올 여름 야외 10대 인턴쉽 인기 많다... 미 기술기업들 사무실 복귀 정책 강화.. 전기차 사용 준비 멀었다.... 월가, 미 소비자 상황 긍정적 베팅

#### [미국 금융]

- Bloomberg:투자자들 “기업 탐욕에 따른 인플레 때문에 연준 계속 금리 인상” 예상
- WSJ:또다른 금융 위기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 [뉴욕시]

- CNN Business: 뉴욕시 다운타운 가는 운전자에게 요금 부과
- CNN Business: 뉴욕시, 앱 음식 배달 근로자 최저임금 발표

#### [서부 항만]

- CNBC: 52억 불 규모 화물 서부해안 항구에 정체... 트럭과 컨테이너 병목 현상 탓

#### [에너지]

- CNBC:골드막삭스, “앞으로 오일가격 10% 내린다”

#### [미중 경제]

- WSJ:미국,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 중국내 사업 허용
- The Economist: 외국인 중국에서 사업 불가능 한가?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Silicon Valley, 사무실 복귀를 둘러싼 논쟁 확대
- Bloomberg:구글 CEO “AI 서두르지 않고, 효율성 추진 계속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Food Prices Are Still Up 8.2% Online Even as Inflation Cools**

#### **인플레 둔화 불구 미 온라인 거래 식료품 가 8.2%나 상승**

- 지난 5월에 미 온라인 선상 소비자 제품 가격이 2.3%로 떨어졌다. 9개월 연속 떨어졌으며 팬데믹 초기 이래 가장 큰 폭은 감소세로 관련 조사 Adobe는 밝혔다. 주로 값이 비싼 임의 소비재 큰 하락세 때문이었다.
- 반면에 식품, 애완동물 제품, 개인 위생 용품등 필수 품목의 인플레는 계속되고 있다. 인플레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식료품 가격은 작년보다 8.2%로 상승했다.

## Bloomberg 기사

**WSJ: Jerome Powell's Big Problem Just Got Even More Complicated****연준 목표 상충: 금융 안정화에 인플레이 안정도 목표**

- 파월 의장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금융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즉, 최근 신용 경색을 피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동시에 그 반대 입장인 인플레이와 싸워야 하는 상충되는 목표에 처해있다.
- 올 봄에 중간 사이즈 은행 3개가 붕괴된 직후에 따른 금융 산업의 경색 상황 때문에 일부 연준 관리들은 이번주 6월 FOMC 회의에서 이자율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경제와 인플레이는 기대치와는 달리 둔화되지 않고 있다.
- 전직 현직 연준 관리들은 은행 스트레스가 악화될 경우 연준의 어려운 선택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Raghuram Rajan는 “선택은 쉽다. 금리는 더 크게 올리고 은행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면 복잡해지지만, 인상하지 않으면 인플레이 가속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 타이밍 차원의 리스크는, 인플레이가 대중 심리에 고착화되면 연준의 단기 금리는 더 오래 고공행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 스트레스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 WSJ 기사

**Bloomberg: Fed Backs Away From Wages Focus, Bolstering Case for Rate Pause****연준, 임금 인상 우려 감소... 금리 중단 가능성 커**

- 그동안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를 부추긴다는 입장을 연준이 재고 하고 있으며 이런 입장 변화 때문에 이번주 금리 인상 중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즉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임금과 가격 인상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5개월간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다.
- 싱크탱크인 Employ Ameri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Preston Mui는 “임금과 인플레이 연관성이 크지 못하다면 인플레이가 회복되지 않은채 노동 시장이 크게 완화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6월 금리 인상은 건너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올여름 10대 야외 인턴쉽 인기 많다]**

- 올 여름에는 인명구조 요원, 야외 캠프 카운셀러 등이 사무실 인턴보다 인기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
- Indeed.com 에 따르면 올 여름 일자리 공고가 작년보다는 아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여름 여행, 외식, 데이캠프에 자유롭게 지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미 기술 기업들 사무실 근무 복귀 정책 강화]

-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렇지 않는 미 기술 기업들은 직원들이 원격근무에서 재택근무로 돌아가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구글, Lyft, Facebook, Meta 플랫폼, Salesforce 등이다. 사무실 근무와 더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 [전기차 사용 준비 멀었다]

- 전기차 도입은 교통 시스템의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갈길이 멀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가솔린 차량 구매와 동등한 수준의 일관되고 만족스런 경험을 각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월가, 미 소비자 긍정적 상황에 베팅]

- 인플레이, 성장 둔화, 금리 상승 때문에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부채자들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 그러나 월가는 대부분의 미국인 소비자들인 이같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 약 3천억불 규모의 미 차량 및 신용카드 부채 시장에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Fed Will Keep Rates High Thanks to Inflation Fueled by Corporate Greed, Investors Say**

#### **투자자들 “기업 탐욕에 따른 인플레이 때문에 연준 계속 금리 인상” 예상**

- 치솟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이 인플레이 인상 문제점은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전문가 및 소매 투자자들에 설문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응답자 288명중 90%가 답변하기를 유럽과 북미 즉, 대서양 양쪽 기업들은 팬데믹 초기 이후 원가를 초과하는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것. 5명중 거

의 4명이 금리 인상등 긴축 통화정책이 기업의 이윤 주도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 WSJ 칼럼: How to Prevent Another Financial Crisis 또다른 금융 위기를 어떻게 막아야 하나

- 지난 10년간의 규제조치가 은행계의 경쟁을 막았으며 유연성을 약화시켰다. 광범위한 부채 주도의 연방지출이 은행 산업의 성장 전망을 약화시켰다.
- 그리고 연준의 뒤늦은 그리 임시 변통적인 인플레이와의 싸움 때문에 광범위한 금융 불안정이 촉발된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민간 자본의 유입과 통폐합이 작은, 중간 트기의 은행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 자본은 정부 자본보다 뛰어나다. 이를 통해 신중한 신용 제공과 보다 경쟁력있는 탄력적인 은행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납세자에게 더 많은 손실 노출을 줄어줄 수 있다.

WSJ 기사

### [뉴욕시]

### CNN Business: New York City will charge drivers going downtown. Other cities may be next

#### 뉴욕시 다운타운 가는 운전자에게 요금 부과

- 조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시가 Lower Manhattan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료 부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피크 시간대에 차량에 9불에서 23불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며, 내년 봄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이 통행료와 특정 운전자에 대한 할인 및 면제 혜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CNN Business 기사

### CNN Business: New York City announces minimum wage for app food delivery workers

#### 뉴욕시, 앱 음식 배달 근로자 최저임금 발표

- 뉴욕시는 일요일에 앱 음식 배달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최저 임금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Uber Eats와 DoorDash 같은 서비스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뉴욕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의 6만 명 음식 배달 근로자들은 현재 시간당 평균 7.09불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저 임금제로 시간당 최소 19.96불을 종국적으로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 최저 임금은 올해 7월 12일에 시간당 17.96불로 인상될 것이고, 2025년 4 월에는 시간당 20불로 인상될 예정이다.

CNN Business 기사

### [서부 항만]

#### **CNBC: \$5.2 billion in cargo stuck off West Coast ports in truck, ocean container jam**

#### **52억 불 규모 화물 서부 항구에 정체... 트럭과 컨테이너 병목 현상 탓**

- 항만 인력의 근무 중단으로 인해 서해안 항구의 생산성이 느려지고 있다. 그 결과 서해안 항만 밖에서 대기 중인 컨테이너의 평균 수가 급증 했다.
- MarineTraffic에 따르면 오클랜드 항구의 경우 전주 항만 밖에서 대기 중인 평균 컨테이너(TEUs)가 25,266개에서 35,153개로 증가했다.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항은 21,297개에서 51,288개로 증가했다.
-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의 컨테이너 86,381개의 총 가치는 컨테이너당 6만 1천 불의 가치이며, 세관 데이터를 기준으로 52억 불에 달 한다.
- 컨테이너 선적을 추적하는 Vizion에 따르면 오클랜드 항구를 통해 통과된 컨테이너의 일주일 가동률은 58%, 롱비치 항구는 64%, 로스앤젤레스 항 구는 62% 밖에 안 된다.

CNBC 기사

### [에너지]

#### **CNBC: Goldman Sachs slashes oil price forecast by nearly 10% as Russian supply recovers**

#### **골드만삭스, “앞으로 오일가격 10% 내린다”**

- 골드만삭스는 Brent 12월 선물가격을 배럴당 95불에서 86불로 하향 전망 했다.
- 이같은 전망은, 사우디가 오는 7월부터 매일 백만배럴씩 감산하겠다는 지 난주 발표가 있었음에도 예상되고 있다.
- 이유는 이란과 러시아의 상당한 공급 증가 때문이며 러시아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석유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 서방의 제재에 도 불구하고 러시아 석유 생산은 탄력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CNBC 기사

**[미중 경제]****WSJ: U.S. to Allow South Korean, Taiwan Chip Makers to Keep Operations in China****미국,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 중국내 사업 허용**

- 최근 연방상무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보복없이 중국에서 기존 칩 제조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이런 허용 조치로 인해 미국의 기술 발적으로 늦추기 위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방 상무부의 산업및 안보 담당 차관인 Alan Estevez은 “미국의 중국에 칩과 칩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기존 면제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WSJ 기사

**The Economist: Is doing business in China becoming impossible for foreigners?****외국인 중국에서 사업 불가능 한가?**

- 팬데믹이 점차 완화 되면서 중국이 3년 만에 문을 개방했다. Elon Musk, Jamie Dimon 등 지난 3개월 동안 비즈니스 거물들이 중국에 다녀왔다. “중국은 다시 비즈니스에 복귀했다” 라고 Xi Jinping이 말했다.
- 하지만 중국 정부는 4월에 스파이 방지법과 미국 기업의 보안 위협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데이터 관련 법으로 다른 나라의 기업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데이터 제공 업체 Wirescreen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이미 제약을 받고 있고, 9천 개 이상의 서방 기업이 중국의 제재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6월 6일 Sequoia Capital은 중국 법인과 별도로 회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6월 10일 Microsoft는 인공지능 연구원을 중국에서 밴쿠버로 옮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인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강대국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 The Economist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Silicon Valley escalates the battle over returning to the office****Silicon Valley, 사무실 복귀를 둘러싼 논쟁 확대**

-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다. 현재 기술 업계는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구글은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3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을 업데이트 하여 사무실 출근을 확인하고,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구글의 엔지니어이자 알파벳 노조원인 Chris Schmidt는 “근로자의 전문성이 무시 되었다”며 “이는 근로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의 생활 환경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Google CEO Vows Not to Rush AI and Says Efficiency Drive Continues****구글 CEO “AI 서두르지 않고, 효율성 추진 계속한다”**

- Alphabet CEO Sundar Pichai는 AI 개발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지만,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구글의 운영 방식에 대해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할 것은 없다며, 이는 우리가 최첨단을 혁신하는 선순환의 원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 또한 그는 구글의 새로운 AI 제품들은 주류 검색 데이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편,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 등 AI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여전한 미국 경기 침체 우려...피델리티 "신용경색 가능성"****골드만삭스, 1년내 침체 가능성 25%로 낮추는 등 낙관론도 혼재**

고용시장을 비롯한 미국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둘러싸고 투자기관들 사이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일부 채권 투자기관들은 경기 둔화를 예상하며 위험자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 속에 3월 표면화된 은행권 불안은 대형 위기의 맛보기일 뿐이며, 지난주 호주·캐나다의 '깜짝' 금리 인상은 여전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미국에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